

행복해지는 연습

조갑 트롱파(티베트 승려)

(5) 무희망의 풍요로움

‘희망 집착’ 버려야 온전히 자유로워져

학생1: 무희망을 얻기 위해서 저는 어떤 희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되돌아가서 희망과 무희망 사이를 왔다갔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 으로부터 잡아당김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트롱파: 중요한 것은 희망이나 그런 가망성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알고자 하는 탐구심입니다. 그것은 항상 탐구하지요.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에 대한 당혹스러움, 자신의 광기와 혼란을 탐구합니다. 이런 탐구심은 희망의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한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문체와 망설임을 발견한 후에는 그런 고통과 혼란을 없애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쨌든 우리가 늘 하는 일이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늘 하는 일이에요.

자신의 망설임과 혼란과 광기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치유법을 찾지요.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치유 쇼핑을 해보지만 근원적 치유법은 없음을 발견합니다. 잠시 동안은 몰라도 근본적 효과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시작하지요.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을 의심합니다. 각각의 브랜드를 검토하고 상표에 쓰여 있는 지시사항도 읽어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가 우리는 진저리가 나옵니다. 이제 유일한 치유책, 최선의 치유책은 무희망이라고 자신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무희망은 당신 자신이 만든 상품입니다. 돈이나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슈퍼마켓에 갈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값싸고 질도 좋아요. 유기농제품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슈퍼마켓도 돌아다니고 광고도 보았지요. 모든 것을 두루 다 살펴봐왔어요. 이제는 희망을 포기할 때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었다는 희망마저도 버려야만 해요.

학생2: 절망은 에너지와 고통의 관계에서 나오나요? 제 생각에는 고통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절망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트롱파: 에너지는 어떤 면으로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100퍼센트 고통은 아니지요. 아마도 50대 50일 겁니다. 고통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와 지성입니다. 지성은 여기서 아망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를 수 없는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목적을 이를 수 없을 거라고 느끼는 거지요.

학생3: 때로 저는 제가 고통을 찾았다나하고, 고통을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학적인 일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린포체 생각은 어떠십니까?

트롱파: 그것은 매혹 또는 마음이 무언가에 사로잡혀버리는 것 같군요. 지루함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큰 고통을, 자신이 이를 불릴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이것의 존재' 라는 더 큰 고통을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무슨 수를 쓰는 작은 고통을 만듭니다.

학생4: 탄트라가 연속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깨달음은 사람은 자신이 연속되지 않고, 전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확실함이 예고이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그는 자유롭게 연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트롱파: 탄트라라는 분명 연속을 의미합니다. 이 연속은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속은 피상적 연속이나 비연속에 절대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연속입니다.

분명 깨달음의 체험은 고착을 가진 예고의 비연속 또는 중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통하는 면도 있습니다. 깨달음은 지금 현재에 관한 것이지만 미래에도 해당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 깨달았지만 나중에는 더욱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계속되는 깨달음의 맥이랄까, 그런게 있어요.

예고나 없다는 의식이 가장 큰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연속은 하나의 기준점에 연속해 결부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준점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완전히 외계 우주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 은하계도 항성도 없는 근원적인 곳입니다. 거기에 별과 은하수와 항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학생5: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무희망의 발견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수양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모든 평소의 자신을 벗어나야 하나요?

트롱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하나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지요. 심중팔구는 당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해 줄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루의 역할이지요.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해 줄 영적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희망이 없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야. 당신의 미래는 무(無야)." 구루의 역할은 바로 당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해 주는 것, 또는 당신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리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충격을 주어야 해요. 안 그러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온갖 불평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학생7: 린포체께서 말씀하시는 고통의 개념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게 있어 고통이란 이룰때면 제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느낌이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의 느낌이 없을 때, 고통이 사라졌을 때 저는 "자, 이제 아프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제게 있어 고통



나로파 대학에서 강연중인 트롱파 린포체

예고 중단시킬 때 깨달음 체험 깨닫겠다는 희망마저 버려야 가능 스승은 제자에게 '희망 없음' 즉, '무희망'의 진리 전해주자

이란 몸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것도 날카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린포체가 말씀하시는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을 때조차도 여전히 거기 존재하는 그런 거잖아요.

트롱파: 네 말뜻을 잘 이해하고 있군요. 바로 그거예요. 좀 더 큰 개념, 즉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당신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특징 지점에서 또 하나의 특징 지점까지 연장된 어떤 것으로 보려 하죠. 다시 말해서 당신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어떤 경계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당신은 신경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 너머에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당신에게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고 애쓰지요. 이것이 바로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더 큰 것들입니다.

학생8: 그렇다면 작은 고통들은 이룰때면 일 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것처럼 작은 것들인가요? 잠시 동안은 정리를 해 주는...

트롱파: 그리고 그것은 좀 더 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실용적인 일이 있다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학생8: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일종의 희망 아닌가요? 그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요?

트롱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더 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어요.

학생8: 하지만 더 큰 상황을 깨닫기 위해 그런 일을 꼭 겪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트롱파: 당신의 지성에 달린 일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지나치게 꾸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삶에 대해 현실적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9: 우리가 만남의 그룹에 참여한다든지 함으로써 스스로 묘책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열리고 있고, 고통의 가면을 벗긴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까. 무희망 안에서는 그런 묘책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희망을 놓은 사람은 그런 묘책에 절대 끌이지 않는 것을 깨닫나요? 끝까지 않으리라는 것일까요?

트롱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학생10: 린포체, 저는 그와 동시에 상황의 희망없음을 깨닫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쁨도 결부돼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서 상반된 개념이 합쳐지는 것 같거든요.

트롱파: 그래서요?

학생10: 믿을 수가 없어요. 기쁨과 고통이 합쳐진다는 것일까요.

트롱파: 바로 그것입니다. 무희망은 당신이 특별히 어디가 고통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에너지가 풍성하지요.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기쁨이요. 하지만 기쁨이란 아마도 잘못 선택된 단어일 거예요. 그보다는 무희망으로 인해 오는 건강함, 건전한, 웰빙의 느낌이겠지요.

학생 10: 아무런 예고는 없지요.

트롱파: 웰빙의 느낌이 반드시 예고를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생10: 진화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무희망으로 진입하려는 단계인가? 나로파의 이야기를 읽으면 나로파가 엄청난 고생을 한 것 같은데요.

트롱파: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무희망의 수준은 나로파의 삶의 시작 부분, 즉 그가 학자가 되기 전에 왔어요. 우리는 그가 티로파를 만나려 하면서 겪게

되는 무희망의 수준, 즉 탄트라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지금 초보의 수준이고 나로파가 승려의 계를 받고 승원에 들어가갈 때 경험한 것입니다.

학생10: 그로 하여금 승원에 들어가도록 만든 무희망의 의식은 별로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멸 같은데요. 제 말은 제가 부모님께 수행그룹에 들어가겠다고 말한다면 저는 일상생활의 환멸에 대해 말했을 것 같아요.

트롱파: 그래요. 하지만 승원에 들어간 후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노력을 하고 서두르고 그랬던 거지요. 무희망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학생10: 그래서 그는 결국 승원 밖으로 나가 구루를 찾았던 거군요.

트롱파: 아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정신을 차렸던 거지요. 그리고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학생10: 그러니까 린포체께서 말씀하시는 무희망은 승원생활의 상황에 대한 그의 무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트롱파: 그렇지요. 무언가가 교대로 일어났어요. 먼저 직감이 왔고, 다음에 지성이 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직감이 왔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지성이 왔어요. 그의 첫 번째 직감은 승원에 들어가겠다는 욕구였어요. 그래서 그는 승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무희망을 발견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방법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의 무희망을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거기에 커다란 지성이 있었어요. 경·을·론 삼장을 안팎으로 다 알 만큼 철저히 공부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티로파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다시 직감의 차원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다시 그는 지성으로 돌아갔지요. 그 시점에서 그는 프라즈나(prajna: 초월적 지식, 제6바라밀인 프라즈나(반야)가 초월적이라 불리는 것은 이원적 혼란의 베일을 뚫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성 대신에 지나나(jnana: 모든 이원적 개념화를 다 초월한 깨달음의 지혜 활동) 즉 지혜가 된 거예요.

학생11: 지성과 직감 중 더 거기가 정당한 것이 있나요?

트롱파: 둘 다 확실하죠. 마치 당신의 머리와 팔이 다 정당한 것처럼요.

학생11: 그렇다면 차이는 뭔가요?

트롱파: 지성은 책에서 배운 것 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어요. 특히 학자가 되는 것 하고는요. 그것은 분석적 마음으로서 사물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지요. 반면 직감은 고통과 즐거움의 차원에서 사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학생11: 그렇다면 차이는 뭔가요?

트롱파: 지성은 책에서 배운 것 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어요. 특히 학자가 되는 것 하고는요. 그것은 분석적 마음으로서 사물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지요. 반면 직감은 고통과 즐거움의 차원에서 사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글은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 접수: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의: FAX 02)737-0696 / 02)2004-8213 / iom@hanmail.net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1억4천만원

054)931-4449 / 011-543-2161
010-3123-5143

절터안내

- 최고의 명당 절터
- 대지 3000천평 내 가옥 60평 한채
-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이 살아있는곳
- 대형차 진입가능 • 가액: 4억

011-9583-310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정,은행 등 관공소 도로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010-5019-538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부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중단사찰 가능

35년
친절상담

전주 이강욱 ☎ 010-9842-4200
부창 김상민 ☎ 010-7314-2522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조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 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친들은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전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3월 6일(금) 오후 2시
■ 대상: 명리왕초보반 (영가기초포함) 영가특강반(포교원운영자)

■ 강의내용

- ① 한 맺힌 조상 찾는법, 조상(귀신)이 발동한(대세운) 것을 아는 법
- ② 천도는 열이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서 해야 효험이 빠르다.
- ③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 ④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⑤ 신경성, 우울증 등으로 마음안정이 안되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명리왕초보반강좌

- 듣기만 해도 기억되는 쉬운오행몰이, 한자 몰라도 됨
- 기초반 2개월과정 모집 - 수강료 2개월 30만원
- 기초가 없으신 분은 초보반 수강후 영가반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백암역리원

02)597-1101.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성대마트앞) - 동작구 삼도동 315-5